

• 예배시간: 오전 10시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다같이

1. 예수 나를 오라 하네
2. 아바 아버지

기 도 다같이

- ①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영광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 ②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예배 공동체로서 서로 믿음의 삶을 나누게 하소서.
- ④ 어린이들/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 ⑤ 병환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도우소서.
- ⑥ 각자에게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준비하게 하소서.

성경봉독 서일원 목사
시편 51편 11-12절 (구약 p.839)

설 교 설교자
“예배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5)”

헌 금 다같이
“천 번을 불러도”

광 고 사회자

축 도 서일원 목사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신념체계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의 20%가 개신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물질주의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는 게 더 적당한 질문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개신교인의 신념체계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좇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이 신(神, 맘몬)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념체계도 물질에 함몰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나 원리,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신(神)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특히 위기가 오는 경우, 자신이 가진 이러한 신념체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수 24:15).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은 탐식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육신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John P. Newport, *What Is Christian Doctrin?*).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직접 나타내셨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행위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을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신 구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시고 완성하시는 일이 신약성경에 나온다고 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사람은 새로운 신념체계를 갖게 됩니다. 이 신념체계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이 반영됩니다(위의 책, 9).

1930년대 독일의 교회들은 상당히 흥왕했었습니다. 동시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사회, 정치, 경제 전 분야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나치 정권에 대항하였습니다. 마르틴 니에뮐러(Martin Niemöller) 목사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행했다가, 나치 돌격대(Nazi Storm Troopers)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위의 책, 8). 오늘날 세상의 물질주의로부터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맘몬의 거센 도전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신념체계를 명확하게 정의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I.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맘몬에 빠져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좇지 않게 하소서.
3.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실천을 보이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Levica 교회 - Slavomír Poloha 목사

II.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26일 (주일)	예배	1. 예배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성도의 경건이 어우러지게 하소서. 2.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향기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소서.
27일 (월)	코로나 19	1.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소서. 2.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소서.
28일 (화)	일터	1.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 휴가기간 중 세상의 문화로 마음이 흠트러지지 않게 하소서.
29일 (수)	형제 교단	1. 교단 임원들에게 힘을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2. 여름 행사를 진행 중인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30일 (목)	주일 학교	1. 어린 영혼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소서. 2.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31일 (금)	청소년	1.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시기 되게 하소서. 2. 마음의 혼란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온전히 성장하게 하소서.
8/1일 (토)	나라	1.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나라 곳곳에 나타나게 하소서. 2. 물질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나라로 변하게 하소서.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7월 26일(주일)	사 11장 1 - 16절
7월 27일(월)	사 12장 1 - 6절
7월 28일(화)	사 13장 1 - 22절
7월 29일(수)	사 14장 1 - 23절
7월 30일(목)	사 14장 24 - 32절
7월 31일(금)	사 15장 1 - 9절
8월 1일(토)	사 16장 1 - 14절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내
오전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학생회	7,8월 방학
어린이 주일학교	
마더와이즈	
오후 성경공부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내
큐티나눔모임	7,8월 방학
수요기도회	코로나19 관련 잠정 중단



광고 Announcement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
예방수칙 준수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① 손소독, ② 마스크 착용.
- 휴가 복귀 후 당부사항
휴가 복귀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주시기 바랍니다.
- 휴가 기간 중 예배 시간 조정
휴가 기간 중 예배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기간: 7월 26일 ~ 8월 9일
시간: 주일 오전 10시
※ 이 기간 중 2부 예배는 없습니다.
- 제직 세미나
일시: 8월 15일(토) 오전 10시
강사: 이창순 목사(서울 서부침례교회 담임)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신학대학원(M.Div)
- 예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전공(Th.M)
-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 줌(Zoom)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7월 헌금위원장	
1부 예배	권현수, 박시문
2부 예배	김영수, 서제원
8월 헌금위원장	
1부 예배	김택근, 박종석
2부 예배	김영수, 정세영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Zilina

2020년 7월 26일
(30주)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E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직: 김영수, 김은혜, 박시문,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